

丁卯胡亂時 昭顯分朝와 世子の 役割*

— 『昭顯分朝日記』를 중심으로 —

성 당 제**

-
- | | |
|-------------------------|-------------------|
| 1. 머리말 | 1) 신하들의 서연 권유 |
| 2. 분조의 구성과 이동 경로 | 2) 서연의 실시 |
| 3. 분조의 이동과 위치 설정에 대한 논란 | 5. 文武科의 設行 |
| 1) 분조의 이동에 따른 민심의 동요 | 1) 문무과의 실시 |
| 2) 분조의 위치 설정에 대한 논란 | 2) 무과 시험의 문제점과 폐단 |
| 4. 書筵 권유와 서연 실시 | 6. 맺음말 |
-

초록: 조선조에 ‘分朝’는 두 차례 존재했다. 임진왜란 때의 ‘光海分朝’와 정묘호란 때의 ‘昭顯分朝’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광해분조에 대한 日記는 현재 전하지 않고, 소현분조에 관한 일기인 『소현분조일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소현분조일기』는 분조의 구성·역할·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하고도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현분조일기』에 주목하여, 정묘호란 때 소현세자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던 소현분조의 구성과 소현세자의 역할을 살핀 글이다. 『소현분조일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 고찰해 볼 대상도 많다. 그러나 소현분조에 대해 처음 살펴보는 글이므로, 본고에서는 狀達과 上疏, 君臣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선 분조의 구성과 이동 경로, 분조의 이동에 따른 민심동요, 분조 이동 위치 설정에 대한 논란, 書筵과 文武科의 設行 등을 고찰하였다.

핵심어: 昭顯分朝, 『소현분조일기』, 昭顯世子, 仁祖, 書筵, 文武科, 정묘호란, 狀達, 민심수습

* 본 논문은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규장각소장 중요자료 역주사업(1) - 왕세자관련 관청일기류(역주)’ 사업의 학술발표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머리말

17세기로 접어들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주지하듯이 조선조는 임진왜란을 겪고 국력이 耗盡된 상태에서 다시 淸의 침입을 받아 화친하고 형제지국이 되었으며, 재차 淸의 침공을 받아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군신지국의 예를 행하기로 한 굴욕적인 和約을 맺었다. 한편 중원에도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진 명나라가 淸의 침입을 받아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昭顯分朝’는 淸이 처음으로 조선조를 침입한 이른바 정묘호란(인조 5년, 1627) 때 2개월간 존재했던 조정이다. ‘分朝’는 조정을 둘로 나누었다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조정을 行宮 또는 大朝라 칭함에 상대하여 세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정을 가리킨다. 또한 분조는 전란시에 존재했다가 전란이 종결되면 해체되는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정이며 東朝라 일컫기도 하였다.

조선조에 분조는 두 차례 존재했다. 하나는 임진왜란 때 구성되었던 ‘光海分朝’이고, 다른 하나는 정묘호란 때 존재했던 소현분조이다. 그런데 광해분조에 대해서는 일기가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당시 분조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반면 소현분조에 대한 기록은 『소현분조일기』에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어, 그 구성 및 당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과 사건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분조의 역할이나 성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찰하는 데 『소현분조일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게다가 『소현분조일기』는 조선조에 존재했던 분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므로, 그 의미와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소현분조일기』는 인조 5년(1627) 1월 21일부터 동년 3월 26일까지의 소현분조에 관한 기록으로, 모두 4권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분조가 구성되고 세자가 도성을 출발하여 전주에 머물러 있다가 상황이 종료되어 다시 行宮이 있는 江都에 당도했을 때까지 세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처리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 체제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하루하루의 일이 시간에 따라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기사의 끝에 狀達과 上疏가 실려 있다. 장달은 모두 88편이고 그 내용은 주로 관찰사·해운판관·摠戎使·號召使·현감·군수 등등이 敵情, 군량 조달 및 수송 현황, 군병 모집 및 수송 현황,

한강·임진강·금강 지역 수비 현황 등을 세자에게 보고한 것이다. 상소는 모두 27편이고 幼學·生員·出身·侍職 등이 세자에게 올린 글로서, 그 내용은 청과의 화친 반대, 분조 위치 이동에 대한 반대, 武科 증설 건의, 糧穀의 헌납, 각 고을 폐단과 해결 요구 등등에 관한 것이다.

『소현분조일기』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狀達’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장달은 임금에게 올리는 狀啓 대신 쓰는 용어로, 세자의 下命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管下의 중요한 일을 세자에게 보고하던 문서이다. 조선조에서 ‘장달’의 시초는 이 『소현분조일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그 서술 내용도 상세하므로 당시에 벌어졌던 역사적 상황이나 사건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군량과 군병을 징수하거나 이를 강화도로 올려 보낸다고 보고한 장달에서는 三南 지방에서 징발할 수 있는 그 규모와 징발에 따른 각종 폐단을 살필 수 있으며, 把守 상황을 보고한 장달에서는 당시 누가 어떤 지역을 몇 명의 병사로 지켰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달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현분조일기』가 난해한 초서와 어려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분조일기가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 소현분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의 『소현분조일기』 역주 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학계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이처럼 『소현분조일기』가 조선조에 존재했던 분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데 주목하여, 소현분조의 구성과 소현세자의 역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대략 열거했듯이 『소현분조일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어 고찰해 볼 대상도 많다. 그러나 이 분조일기의 역주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또 소현분조에 대해 처음 살펴보는 글이라 여겨지는 만큼, 본고에서는 우선 분조의 구성과 이동 경로, 분조의 이동에 따른 민심 동요와 분조 이동 위치 설정에 대한 논란을 살펴본 다음, 분조에서 실시한 서연과 문무과의 설행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분조의 구성과 이동 경로

인조 5년(1627) 1월 21일 平安兵使 南以興이 ‘凌漢山城이 함락되었다’고 馳啓한 급보를 접하고 나서, 조정에서는 分朝할 준비를 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오직 江都만을 지키다가 명령이 통하지 못하게 되면 남한산성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사나 수령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므로, 종묘사직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분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소현세자가 16세였으므로 나이가 어린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 대신 한 명을 딸려 보내기로 하면서 분조하기로 결정을 보게 된다.¹⁾ 그리하여 같은 날 인조는 分朝의 계책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세자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號牌法과 儒生の 考講 등의 일은 일체 과하도록 하라. 지나는 길에 없앨 만한 徭役은 형편에 따라 세자에게 아뢰어 없애도록 하라. 모든 일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행하도록 하라. 관리임명의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니 吏曹와 兵曹의 관원이 從行하도록 하라. 사태가 급박해진 후에는 監使·兵使·守令을 곧바로 임명하도록 하라. 감사·병사·큰 고을 수령 이외에 작은 고을 수령과 같은 경우는 그 곳에 적합한 사람을 가려서 除授하여 진작시키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라.

분조에 두 대신 외에 품계가 높은 宰臣 1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이조와 병조의 堂上 각 1명과 郎廳 각 1명, 侍講院과 翊衛司 각 2명이 陪行하도록 하라. 記事官은 說書가 맡아서 하고, 吏郎은 시강원을 겸직하고 있는 관원이 겸하여 행하도록 하라.²⁾

윗글에 분조에서의 세자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號牌와 유생의 考講을 모두 없애고, 또 없앨 만한 요역을 없앨 것이며, 사태가 급박해지면 감사·병사 등을 바로 임명하고 작은 고을 수령은 직접 적합한 사람을 제수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당시에 호패법과 유생들의 고강은 폐단을 야기하였다.

1) 『인조실록』 15권, 5년 1월 기축 1번째 기사 참조.

2) 『昭顯分朝日記』 권1, 天啓七年 丁卯 正月 二十一日 己丑: “傳曰, 世子下歸南方, 號牌之法, 儒生考講等事, 一切罷之. 所經徭役可除者, 隨便導達于世子而除之. 凡事, 臨時便宜行之. 凡干除拜事, 以吏·兵曹官員從行, 事急之後, 監·兵使·守令, 直爲除拜, 監·兵使·大守令外, 如小邑守令, 則擇其處可合人除授, 以爲聳動之地. 分朝兩大臣外, 秩高宰臣一員加選. 吏·兵曹堂上各一員, 郎廳各一員, 侍講院·翊衛司各二員陪往. 記事則說書當爲之, 吏郎則兼侍講院之官兼行事.”

그러므로 세자가 南下하여 민심을 얻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들을 없애라는 것이다. 호패법은 주지하듯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이다. 소현세자는 宣諭書에서 ‘호패는 본래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병기를 수리하여 도적의 틈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호패법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良人들이 호패를 받으면 과중한 각종 國役을 부담해야 한다고 여겨 백방으로 호패 받기를 꺼렸으며, 심지어 세력가에 위탁함으로써 양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호패법 위반자를 治罪하기에 刑獄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³⁾ 고강은 향교의 校生으로서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국가에서 경전을 시험하여 떨어진 사람을 군역에 충당하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고강 제도는 士族을 몰아서 卒隸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인심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사방이 소요스럽고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에도 큰 결점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⁴⁾

그 다음날 1월 22일 인조는 분조의 陪從官으로 21명을 落點하였다. 배종관은 다음과 같다.

體察使 領府事 李元翼, 左議政 申欽, 西平府院君 韓浚謙, 贊畫使 李植, 分兵曹參判 李命俊, 吏曹參議 李聖求, 弼善 李景憲, 吏曹正郎 兼司書 尹墀, 兵曹左郎 金嵩, 說書 吳達升, 翊衛 鄭好學, 副率 韓翼明, 東陽尉 申翊聖, 知事 沈悅, 體察使의 從事官 金世濂) · 崔有海 · 陸性善, 司僕寺主簿 李時雨, 尙衣院直長 金濤, 扈衛大將 柳斐, 中軍 李英達⁵⁾

그런데 1월 23일 司諫院에서 임금에게 ‘講官 및 宮僚들이 아침저녁으로 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다가 난리를 당해 헤어지는 것은 의리상 불가한 일이며 또 질병이나 사고를 예측할 수 없으니, 陪行할 인원을 더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號牌’條 참조.

4) 『인조실록』 14卷, 4年 11月 21日 庚寅 “憲府啓曰: ‘今則以在外方之士, 通謂之校生, 在京中之士, 通謂之學生, 混同而考講, 落者皆定軍役, 是驅士族, 而歸之於卒隸也. 非但人心落莫, 四方騷屑, 於國家養育人材之道, 亦大有缺. 得數千卒, 而失許多士族之心.’”

5) 『昭顯分朝日記』 권1, 天啓 七年 丁卯 正月 二十二日 조 참조. 이 뒤로 2월 1일 강원에서 강원이 출납을 전담하는데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바빠서 六房으로 나누어 맡아야 한다고 세자에게 청해 허락을 받아, 吏房은 弼善 李景憲, 戶房은 兼文學 鄭弘溟, 禮房은 文學 金堉, 兵房은 兼司書 尹墀, 刑房은 司書 趙綱, 工房 說書 吳達升으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다시 공료 陪從臣으로 兼文學 鄭弘溟, 文學 金埴, 翊贊 金迪, 衛率 申翊亮, 翊贊 李惇五 등 5명을 추가로 낙점하여 세자를 배종하게 하였다. 또한 侍講院에서 ‘본원의 僚屬인 司書 趙綱만이 대열에서 빠졌다면 그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임금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이렇게 총 26명의 배종관이 정해지고 난 뒤, 1월 24일 소현분조가 全州를 향하여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상황을 분조일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未時에 왕세자의 분조가 남하할 때, 배종하는 大臣 이하 및 시강원이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자, 임금이引見하고 敦諭하였다. “세자의 나이가 어리니, 卿들은 각자 다른 마음을 지니지 말고 일체가 되어 輔導하라.”

임금이 시강원에 전교하였다. “옛날 배 안에서 『大學』을講한 자가 있었으니,⁶⁾ 지금 세자가 비록 남하하더라도 書筵을 버려둘 수는 없다. 줄 수를 줄여서 틈을 보아 進講하는 일을 착실히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臘藥을 각 1봉씩 하사하였다.⁷⁾

전쟁에 임하여 어린 자식에게 重任을 맡겨 멀리 떠나보내는 임금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시강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을 쉬지 말라고 당부한 점도 주목된다. 장차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릴 세자이기에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현분조가 1월 24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전주에서 36일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상황이 해제되어 임금이 있던 江都(강화도)로 돌아오기까지 61일이 걸렸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가는 데 걸린 날은 12일(공주에서 3일간 머문 날짜를 빼면 9일)이고, 전주에서 다시 강도로 올라오는 데 걸린 날은 13일이다. 분조의 날짜별 이동 경로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1월 24일 : 도성 출발 → 漢江 → 果川縣(1박)

25일 : 과천현 출발 → 沙斤院 → 水原府

6) 옛날 배 안에서 『大學』을講한 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됨.

7) 『소현분조일기』 권1, 天啓 七年 丁卯 正月 二十四日 壬辰: “侍講院啓曰, 本院僚員只四人從行, 體臣以爲六房分掌之事甚多, 司書趙綱, 亦爲啓請從行, 故敢此再啓. 答曰, 依啓. ○ 未時, 王世子分朝南下, 陪從大臣以下及侍講院辭朝, 自上引見敦諭曰, 世子幼冲, 卿等須勿各自爲心, 一體輔導. ○ 傳于侍講院曰, 古有舟中講大學者, 今世子雖南下, 書筵不可曠廢, 減其行數, 觀隙進講事, 着實爲之. 因賜臘藥各一封.”

- 26일 : 수원부 출발 → 振威縣
- 27일 : 진위현 출발 → 所沙郊 → 稷山縣
- 28일 : 직산현 출발 → 天安郡 → 全義縣
- 29일 : 전의현 출발 → 廣亭 → 公州
- 2월 1일 ~ 2월 3일: 3일간 공주에 머무름
- 4일 : 공주 출발 → 尼山縣
- 5일 : 니산현 출발 → 連山 → 恩津縣 → 礪山郡
- 6일 : 여산군 출발 → 參禮驛館 → 全州府
- 7일 ~ 3월 12일 : 36일간 전주부에 머무름
- 3월 13일 : 전주 출발 → 삼례 → 여산군
- 14일 : 여산군 출발 → 은진현 → 니산현
- 15일 : 니산현 출발 → 공주 경내의 板峙郊 → 공주
- 16일 : 공주 출발 → 廣亭驛 → 전의현
- 17일 : 전의현 출발 → 천안군 → 직산현
- 18일 : 직산현 출발 → 소사교 → 진위현
- 19일 : 진위현 출발 → 수원부
- 20일 : 수원 출발 → 廣州 구포 교외 변두리 → 安山郡
- 21일 : 안산군(4更에 출발) → 蘇來山 → 富平府 → 廣日院 → 通津縣
- 22일 : 통진현(비가 내려 1박)
- 23일 : 통진현 출발 → 甲串津에서 강을 건넌 → 鎭海樓 → 江都에 도착

세자가 남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수원부에서 백성 수십 명이 호패를 成冊한 것을 소각하기를 청하자 “이미 모두 불태웠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였고, 수감된 자들을 조사하여 석방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원이나 유생들이 올리는 상소에 답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부사를 인견하여 남쪽의 수군을 江都로 보내 방어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해운판관을 인견하여 해운이 중요하니 군량 운송에 마음을 다하고 추후에 운송 상황을 자세히 장달로 보고하라고 하령하였으며, 각 고을의 수령을 인견하고 폐단을 묻기도 하였고, 여러 곳에서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宣諭하기도 하였다.

또한 殉國한 義州判官 崔夢亮의 집에 宮官을 보내 조문하기도 하였고, 水原判官이 茶啖을 올리자, 앞으로 여러 고을에서 이를 선례로 앞 다투어 올리게 되면 폐단이 많을 것이라 하여 사양하기도 하였다.⁸⁾ 최몽량은 정묘호란 때 鍾峴에서

8) 『소현분조일기』 권1, 天啓 七年 丁卯 正月 二十五日: “從兼司書尹堦, 持賻木十疋, 以下令之

督戰하였는데, 적군을 선도하는 姜弘立을 발견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적군을 돕는다고 꾸짖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였다.

3. 분조의 이동과 위치 설정에 대한 논란

1) 분조의 이동에 따른 민심의 동요

분조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실로 중대한 사안이였다. 분조가 이동하면 이에 따라 민심이 동요하여 불안해지고, 민심이 동요하여 불안해지면 백성들이 흩어져 마을이 비게 되어 군병과 군량을 모으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분조가 이동함으로 인하여 민심이 동요한 사실은 다음 글이 잘 말해준다.

鄭廣敬이 나아가 말하였다. “... 臣이 오면서 公山(公州)에 이르니, 공산의 士民들은 저하께서 오래 머무르지 않으신 것을 실망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또 이 府(전주부)를 떠나려 하신다고 합니다. 인심이 소란하여 스스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永詢이 말하였다. “분조가 南下한 것은 실로 인심을 진정시키기 위함인데, 우매한 백성들이 본의를 알지 못하고 적의 銳鋒이 이미 닳았다고 생각하여, 모두 곡식을 묻고 산에 올라가니, 촌락이 곧 텅 비게 되었습니다. 신이 보니, 이곳 전주부 성 안의 백성들 또한 가산을 모두 치우고서 단신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으고 위무하는 일은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 府는 곧 한 道의 근저입니다. 이 부의 백성이 안정되면 여러 고을에서도 필시 풍문을 듣고 다투어 들어오게 될 것이니, 진정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⁹⁾

意, 致弔于崔夢亮家.”; 같은 곳: “下令曰, 水原判官, 進入茶啖, 其誠則可嘉矣. 今若受之, 則列邑必爭效之, 爲弊不貲, 故退而不受. 此意預先知會於各邑.”

- 9)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初十日 丁未: 廣敬進曰 … 臣來時, 到公山, 則公山士民, 以邸下久不留住爲缺望. 今聞, 又欲離此府云. 人心騷屑, 不能自定, 願少留意焉. 永詢曰, 分朝南下, 實欲鎮定人心, 而愚下之民, 不知本意, 以爲賊鋒已迫, 皆埋穀上山, 村落一空. 臣見本府城中之民, 亦盡撤家產, 單身坐待. 招集撫安, 一日爲急. 此府乃一道之根底也. 此府之民既定, 則列邑必聞風爭入, 庶有鎮定之望矣.

윗글은 2월 10일 세자가 전주에 머물며 扈從하던 신하들을 召見했을 때의 대화 내용이다. 세자가 공주에 며칠간 머물러 있다가 전주로 내려오자, 공주 지역 백성들은 적들이 가까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모두 곡식을 땅에 묻고 산에 올라가 마을이 텅 비게 되었는데, 전주부의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가산을 모두 치우고 단신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며, 분조의 이동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말하고 있다. 분조가 이동함에 따라 민심이 동요하여 야기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주 생원 金東達의 상소에 잘 서술되어 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분조가 남쪽으로 내려온 뜻은 오로지 三南을 鎮撫하여 회복할 터전을 삼고자 하신 것이므로, 鶴駕를 보자 軍民들이 기뻐 뛰고 父老들이 기쁘게 맞이하여 원근의 인심이 의지하여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아 갑자기 이 고을을 버리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가시면 호서와 영남이 이로부터 흩어질 뿐 아니라 蘆嶺 윗쪽에 사는 백성들도 어찌 집안을 보전하며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江都의 군량은 누구에게서 징발하며, 계속 지원할 군병은 어디에서 賣出하시겠습니까? 적병이 아직 경기 지역을 범하지 않았는데, 학가가 가벼이 옮기면서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신다면, 신 등은 국가의 危亡이 반드시 이러한 일로 말미암게 될까 두렵습니다. … 만약 이곳에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난다면 삼남이 머리 돌리는 잠깐 사이에 무너져 내려 국사에 더 이상 도모할 만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¹⁰⁾

분조가 남하한 뜻은 三南을 진무하여 회복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軍民들이 鶴駕(세자의 수레)가 내려온 것을 보자 모두 기뻐하고 의지하여 원근의 인심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런데 학가가 전주를 떠나 다시 남쪽 바다 쪽으로 내려간다면, 호서와 영남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군량과 군병을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나라의 위망이 닥쳐 더 이상 국사를 도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조의 이동은 민심을 동요케 하고 나아가 군량과 군병을 지원할 수 없

10)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初十日 丁未: “全州生員 金東達等 上疏, … 臣等竊惟, 分朝南下之意, 專在於鎮撫三南, 以爲恢復之根基, 而及觀鶴駕, 軍民踴躍, 父老權迎, 遠近人心, 特以爲安. 曾未數日, 遽棄此州, 遶海而南, 則非但湖西・嶺南, 從此渙散, 蘆嶺以上居民, 亦豈能保其家室而安居哉. 若是則江都糧餉, 孰從而調發, 繼援軍兵何據而責出乎. 賊兵未犯畿甸, 鶴駕輕移, 以爲民望, 則臣等竊恐, 國家危亡, 未必不由於此舉也. … 若於此地退一步, 則三南轉頭一空, 國事無復有可爲者矣.

게 만들어, 결국 나라의 위망이 닥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만큼 신중을 요하는 중차대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분조 이동 위치를 놓고 세자를 비롯한 분조의 여러 관리들이 논란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2) 분조의 위치 설정에 대한 논란

애초에 인조는 분조가 머물러 있을 곳을 전주로 결정하였다.¹¹⁾ 그런데 남하하던 도중 불안해진 세자가 1월 27일 진위현에 이르러 영부사 이원익 이하를 인견하고 “적이 깊이 침입해오면 남쪽으로 내려간 뒤 어느 지역에 머물러야 합니까?”라고 묻자, 이원익이 다음과 같이 말한 데서 분조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은 마땅히 全州에 머물다가 일이 급박해지면 곧바로 統營으로 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영은 배들이 견고하고 機械가 완비되어 있으며 統制使 李守一이 자못 인심을 얻어 믿을 만합니다. 만약 이곳으로 가신다면 강도로 통하는 길도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瑞山과 泰安이 좋다고 하는데, 배가 여의치 않아서 바다로 가기가 어렵고, 도로가 비록 편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필시 통영이 완전하고 확실한 것 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적의 기세가 만드시 팔도에 가득 차는 데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¹²⁾

이원익은 전주에 머물다가 사태가 급박해지면 통영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통영은 배들이 견고하고 장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통제사가 자못 인심을 얻어 믿을 만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세자가 직산현에 이르러 충청감사 權盼을 인견했을 때, 권반은

11) 『인조실록』 15권, 5년 1월 己丑: “欽曰: ‘李植謂: 『宜先向內浦』, 而內浦地偏, 不如往公州, 仍向全州也.’ 元翼曰: ‘南方士子, 平日雖目之以豪強, 而我國名分甚重, 若臨急難, 則爲臣子者, 必有與國同休戚之心. 雖不爲國, 而在渠自衛之計, 亦必如此.’ 上曰: ‘公州太近, 恐不如直往全州也.’”

12) 『소현분조일기』 권1, 天啓 七年 丁卯 正月 二十六日 甲午: “元翼曰, 以事勢言之, 則必無過京都南搶之理, 而我無自恃之力, 何可豫料乎. 今當留駐全州, 若其事急, 則直向統營似好. 統營缸隻牢固, 機械完備, 統制使李守一, 頗得人心, 足以爲恃. 若往此地, 則江都之路, 亦不相阻矣. 或云, 瑞山・泰安亦好, 而舟楫齟齬, 難以泛海. 道里雖曰便近, 必不如統營之完實. 但此賊形勢, 必不至於彌滿八路也.”

세자에게 “적병들이 아직 멀리 있으니, 저하의 이번 행차를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公山은 큰 州이니, 반드시 며칠 동안 머물면서 遠近에 教諭하여 백성들의 여망을 붙잡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공산에 머물지 않으면 인심이 소란해져 필시 적의 형세가 매우 급박한 상태라고 여길 것이니, 전혀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공산에 머물기를 권하자, 세자는 “나의 뜻도 그러합니다. 수원에서 하루 머물고자 하였으나 그 날 아침 급보를 들었으므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¹³⁾

그런데 이틀 뒤 1월 29일, 세자가 공주에 도착하여 巡檢使 沈器遠을 인견하고 “국가가 불행하여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으나,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지체할 것인가 신속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의논하여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르겠으나 우선 이 고을에 머물며 사세를 보아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분조의 위치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그러자 심기원은 ‘공주에 큰 진을 설치하여 금강을 방어하려는 계책을 세운다면 피폐한 고을이 물자를 대느라 피로하게 될 것이니, 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그대로 전주에 내려가 머물러 있는 마땅하다’고 충청감사 권반의 의견과는 다르게 아뢰었다.¹⁴⁾

그리고 2월 2일 무군사에서 ‘공주 유생들이 학가가 공주에 머물러 산성과 강여울을 방어하여 백성의 마음을 진정시켜 西路를 격려하고 고무시키기를 원하는 데, 그 논의가 매우 바르다. 그러나 금강 일대는 검찰사 심기원이 이미 분부를 받고 군사를 뽑아 지키고 있고, 분조는 전주에 학가를 머물러 두고 삼도를 제어하려고 이미 주상으로부터 하교를 받았으니, 지금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아뢰어, 결국 분조는 전주로 내려가게 된다.¹⁵⁾

그런데 상황이 다급해지면 분조가 전주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즉 2월 10일 세자가 전주에서 호종한 자들을 위로할 때, 行司直 鄭廣敬과 同知 柳永詢이 ‘분조가 전주를 떠나려 함에 따라, 공주의 예에서와 같이 전주의 민심이 소란스러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유의할 것이며, 이보다는

13) 『소현분조일기』 권1, 天啓 七年 丁卯 正月 二十七日 乙未: “(權)盼曰, 當依令矣. 又曰, 賊兵尙遠, 邸下此行, 不宜急速. 且公山大州也, 須駐駕數日, 教諭遠近, 以係民望, 可也. 若不留駐公山, 則人心騷屑, 必以爲賊勢甚急, 殊非所以鎮定人民也. 世子曰, 余意亦然. 水原亦欲留一日, 而其日適聞急報, 故未果矣.”

14) 『소현분조일기』 권1, 天啓 七年 丁卯 正月 二十九日 丁酉條 참조.

15) 『소현분조일기』 권1, 天啓 七年 丁卯 二月初二日 己亥條 참조.

백성을 불러 모아 위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영순은 ‘학가가 머물 곳에 대한 논의가 여럿인데, 扶安은 결코 가서는 안 될 지역이니, 지금 잠시 順天으로 옮겼다가 統營으로 향하면 비록 위급한 경우가 있더라도 巨濟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¹⁶⁾

그리하여 같은 날 세자가 대신과 撫軍司 堂上 이하를 인견했을 때, “적의 예봉이 깊이 들어왔으나 방어할 대책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이원익은 “무군사에 모두 모여 학가가 머무를 곳을 상의하였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파하였습시다.”라고 하였다. 이 때 좌의정 신흠도 의견을 말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벌어졌던 분조 위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분분했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아침에 여러 신하들이 무군사에 모였으나 논의가 분분하여 절충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적군이 멀리 치달려와 서울에 이르는 길에 한 곳도 막는 곳이 없으니 흉악한 적의 칼날이 만약 서울에 이르고 또 불행히 한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유격 기병이 바로 남방으로 내려오는 일이 형편상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학가가 머무를 곳을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땅히 진주로 갔다가 위급하면 통영으로 가야 한다. 통영은 배가 견고하고 무기가 완비되어 있으며, 통제사 李守一이 자못 인심을 얻어 믿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지금 급한 일이다. 公山の 士民이 모두 거가가 머물기를 원했는데, 大朝의 명을 어기기가 어려워 곧장 전주로 와서 호서 백성이 놀라고 동요되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지금 만약 이곳에 온 지 아직 며칠 되지 않았는데 또 他道로 향한다면 한 도의 백성 전체가 실망이 더욱 심할 것이다. 나주로 옮겨 도내의 인심을 수습하느니만 못하다. 다만 배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통영의 배를 옮겨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천은 兩南(경상·전라)의 가운데 있어서 이곳저곳으로 가거나 머무는 데 길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책이 있어 재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적의 예봉이 아직 멀리 있으니 반드시 가까운 곳까지 닥치기를 기다린 다음에 떠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은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귀하니 미리 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몇 가지 중에서引見했을 때 결정하고 나가려 합니다.¹⁷⁾

16)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初十日 丁未條 참조.

17)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初十日 丁未: “(申)欽曰, 朝者諸臣會于撫軍司, 而論議紛紜, 不得折衷. 大概賊勢長驅, 而抵京之路, 無一處阻截, 兇鋒若到京都, 而不幸漢水失守, 則游騎直下南方, 勢所必至. 住駕之所, 不可不預定. 或云, 當往晉州, 有急仍向統營, 則統營航

진주로 갔다가 통영으로 가야 된다는 설, 나주로 옮겨 도내의 민심을 수습하자는 설, 순천으로 가는 것이 이곳저곳으로 갈 수 있다는 설 등 3가지 대책이 있어서 어떻게 정할 수가 없다. 또한 더 있다가 적병이 가까이 닥치기를 기다린 뒤에 떠나자는 의견과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미리 피하자는 의견이 대립해 있어, 신흠은 이 자리에서 결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분조의 대신과 관리들은 다시 나주가 좋다느니 순천이 좋다느니 진주가 좋다느니 각자 의견을 내놓았지만, 세자는 논의가 어지러워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진주’로 결정하였다.¹⁸⁾

한편 전주 생원 김동달은 ‘분조가 전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민심을 어루만질 것’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2월 11일 세자가 전주에서 士民들을 인견할 때, 사민들이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전주에 학가가 계속 머물러 있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2월 11일) 무군사에서 세자에게 ‘분조가 머물 곳을 어제 진주로 정했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갑자기 진주와 같은 벽지로 들어가면 대조의 소식이 끊겨서 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분조의 本意가 중요시 하는 바는 백성들의 여망을 매어두는 데 있으니, 멀리서 대조와 소식을 통할 수 있는 지역인 순천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이에 세자는 다시 학가가 머물 곳을 진주에서 ‘순천’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2월 12일 적병의 大陣이 瑞興에 머물러 있고, 游騎 30여 기가 이미 臨津에 도착하였다는 경기감사의 馳報가 들어왔다. 이에 다급해진 세자가 진퇴를 묻기 위해 영부사 이원익과 좌의정 신흠을 인견하였는데, 이 인견에 바로 앞서 김육과 윤지가 ‘분조가 옮겨갈 곳을 진주에서 순천으로 바꾸었는바, 순천은 질병이 돌고 있는 고을이고 왕년에 해일 참변이 있었던 불길한 곳’이라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때 이원익은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존을 호위하는 일이 더 막중하다며, 서둘러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두 분조가 옮겨가면 賊勢가 급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라며 느긋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분조가 옮겨 갈 곳을 순천으로 정했었는데, 듣기에

隻堅牢, 器械完備, 統制使李守一, 頗得人心, 可以爲恃. 或云, 收拾人心, 方今急務, 公山士民, 咸願住駕, 而重違大朝之命, 直來全州, 湖西之民, 驚擾莫定. 今若來此未數日, 又向他道, 則一道之民, 缺望尤甚, 不如移住羅州, 以係道內人心, 但舟楫不完, 統營之舡, 可以移來. 或云, 順天在兩南之中, 彼此去留, 道里順便, 有此三策, 不得裁定矣. 且言賊鋒尙遠, 必待逼近, 然後離發. 或云, 事貴萬全, 不可不預避, 凡此數者, 欲於引見時, 定奪而出矣.”

18)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初十日 丁未條 참조.

그곳에 해일의 변고가 있었다며 다른 곳으로 바꿀 뜻을 물었다. 그래서 다시 나주로 갈지 진주로 갈지 의논이 벌어졌지만, 또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호소사 김장생이 올라와 ‘세자가 만약 이곳을 떠나면 대조와 점점 멀어져 소식이 끊어지고 인심은 놀라 흩어져 회복을 기약하기 어려우니, 가벼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분조의 이동을 막았다. 또한 검찰사 심기원도 세자에게 장달을 올려 ‘분조가 옮겨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고 괴로웠다’고 하면서 ‘적은 멀리 있고 李曙·趙琦·柳琳 등의 대군이 한강을 방어하고 있으며, 심기원 자신도 공주에서 죽기로 방어하고 있고, 이쪽저쪽에서 군민이 모두 힘을 다해 방어하려는 것은 분조가 가까이 있어서 인심이 의지할 데가 있기 때문인데 학가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실망하여 흩어져 버릴 것이니, 완급의 형세를 자세히 들은 뒤에 진퇴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분조가 이동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2월 12일) 무군사에서 ‘적이 임진강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니, 어제 순천으로 達下한 대로 우선 순천으로 길을 잡고 그곳에서 형세를 보아 진퇴를 결정하자’고 아뢰었다. 이에 세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남하하는 일은 우선 적의 상황을 보아 결정하자며 연기시켰다.

다시 2월 16일 세자가 전주부윤 및 나주목사 이하 수령들을 모두 인견했을 때, 泰仁縣監 任忠幹 등은 ‘순천은 나주만 못하며 나주로 가면 일이 급할 때 진도로 건너갈 수 있고, 나주는 노령이 있어서 학가가 머물기에 합당하다’며 나주를 권유하였다. 이에 세자는 ‘순천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의논하여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을 뿐’이라고 하였다.¹⁹⁾

이렇듯 논의가 분분하던 분조 이동 문제는, 결국 같은 날(2월 16일) 임금이 영부사 이원익에게 “분조의 장계를 보니, 장차 경상도로 이주하려 한다고 하였다. 지금 적병이 아직 平山에 주둔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가? 그대로 전주에 머물러 잠시 이동하지 말도록 하라”는 유지가 내려와,²⁰⁾ 전주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분조의 이동 위치를 정하는 일은 실로 지난한 문제였다. 각자의 의견이 달라 진주로 정했다가 다시 순천으로 바꾸고 다시 순천도 좋지

19) 『소헌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六日 癸丑條 참조.

20) 『소헌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六日 癸丑: “大朝有旨于領府事李元翼曰, 曾見分朝狀啓, 將欲移住於慶尙道. 卽今賊兵尙屯平山, 何以爲此計乎. 仍留全州, 姑勿移動.”

않다 하여 또 의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조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민심수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하려는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분조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논의만 무성했다. 대신인 이원익과 신희을 비롯한 분조의 관리들 대부분이 분조를 옮겨가자고 주장한 반면, 유생·생원·호소사·검찰사·전라감사 등은 모두 분조가 전주에 머물며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해결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분조의 책임자인 소현세자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침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이다.

4. 書筵 권유와 서연의 실시

1) 신하들의 서연 권유

일반적으로 서연은 전란이 있으면 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다른 왕세자 일기를 보면 평상시에도 국가의 기일이나 제사를 위한 齋戒 등의 일이 있을 때 서연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세자가 서울을 떠날 때, 임금은 서연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교하였다. 또한 그 뒤에도 여러 사람들이 세자에게 서연을 열도록 권유하였다.

1월 28일 세자가 稷山縣에 이르러 각 고을 수령을 인견할 때, 泰安郡守 陸敍欽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감히 아뢰겠습니다. 비록 파천하는 때라 하더라도 書筵을 오랫동안 비워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떤 책을 講하고 계셨는지 알 수 없으나, 『小學』이 가장 절실합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날마다 서연을 열어 강론을 그치지 마십시오.”

세자가 “『소학』은 벌써 강을 마쳤고, 지금은 『通鑑』을 읽고 있다”라고 말하였다.²¹⁾

21) 『분조일기』 권1, 天啓 七年 丁卯 正月 二十八日 丙申: “敍欽進曰, 臣有一說, 敢冒達焉. 雖在播越之際, 書筵不可久曠. 雖未知方講某書, 而小學最爲切實. 伏願逐日開筵, 講論不輟. 世子曰, 小學曾已畢講, 今方讀通鑑耳.”

그 다음 2월 10일 분조가 전주에 머물러 있을 때, 세자에게 서연을 권유한 사람은 前牧使 李好信이다. 그는 “人君의 講學은 난리가 나 위급한 때라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날마다 書筵에 납시어 강학하고 궁구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 하여 서연을 열도록 권유하였다.²²⁾ 그 뒤 2월 16일 호소사 김장생도 “이미 서연을 시작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난리를 만나 경황이 없는 때이지만, 학문을 강론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렵게 생각하시어 조금이라도 태만한 때가 없도록 하십시오.”라 하여, 이호신과 같은 뜻으로 권유하였다.²³⁾

그 다음 주목되는 서연 권유는 2월 19일에 있었던 前輔德 李堧의 언급이다. 이준은 영남에서 義穀을 모집하다가 이 날 세자에게 와서 숙배한 다음 아래와 같이 말했다.

모든 일은 뜻을 세움에 달려 있고, 뜻을 세우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하의 나이가 아직 젊으시니, 학문을 익히는 뜻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날 漢의 光武帝는 蕭王으로 있을 때에 수레 속에서 육경을 모두 공부하였고, 宋의 高宗은 말세의 용렬한 군주였으나 도리어 『春秋』 읽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만약 위급한 사례로 말하자면 陸秀夫는 배 안에서 『대학』을 강론하였습니다. 진실로 학문의 공부는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급하고 구차한 때나 넘어지고 엎어지는 때에라도 반드시 이와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옆드려 원하옵건대, 날마다 서연에 납시어 강구하고 토론하여, 절대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²⁴⁾

이준은 한나라 광무제가 蕭王으로 있을 때 수레 속에서 경전을 공부하였고, 陸秀夫는 위급할 때 배 안에서 『대학』을 강론했다고 공손하게 말하고 있다. 육수부는 南宋 말의 충신으로 元나라의 군사에 쫓겨 남쪽 바닷가 厓山(현 廣東 新會 남

22) 『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初十日 丁未: “且人君講學, 不可以亂離顛沛, 有所作輟. 須日御書筵, 不忘講究.”

23) 『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六日 癸丑: “長生又曰, 聞已始書筵, 雖在亂離蒼黃之際, 講學不可不勤. 必須惕念, 無時少怠.”

24) 『소현분조일기』 권3,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九日 丙辰: “(李)堧曰 … 又曰, 凡事在於立志, 志立則事無不成. 今邸下春秋尙少, 講學之志, 不可少怠. 昔漢光武爲蕭王時, 車中畢講六經, 宋高宗季世之庸主, 尙且喜讀春秋. 若以危急之事言之, 陸秀夫講大學於舟中, 誠以學問之功, 不可作輟. 故造次顛沛, 必於是矣. 伏願日御書筵, 講究討論, 切勿浪過時月, 幸甚.”

쪽)으로 내려간 行朝에서 左丞相으로 있으면서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도 매일 배 안에서 『大學章句』를 손수 써서 어린 왕을 권면하였다. 그리고 그 뒤 끝까지 송나라의 명맥을 지키다가 애산에서 원의 장수 張弘范의 침공을 받아 왕을 등에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사람이다.²⁵⁾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서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전쟁은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세자에게 있어서 서연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하여 끝까지 서연을 열어 학문을 강구해야 함을 여러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다.

2) 서연의 실시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는 행차에다 적병이 깊이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날아들어, 그동안 서연을 열지 못했다. 그 뒤 화친한다는 소식이 오고 다소 안정을 찾게 되자, 2월 13일 강원에서 세자에게 서연을 실시하자고 아뢰어 그다음 날부터 서연을 열게 된다. 서연에 관한 기사를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월 14일: ○진시 초에 문학 金堉과 사서 趙綱이 入侍하여 『通鑑』 ‘聖王之繼絕世’부터 ‘福祿日來’까지 講하였다.

2월 16일: ○진시 초에 김육과 조경이 입시하여 晝講을 하였다. … ○신시에 김육과 조경이 입시하여 夕讀하였다.

2월 19일: ○사시에 李景憲과 吳達升이 입시하여 『통감』의 ‘聖王之治天下’부터 ‘王心未加焉’까지 강하였다.(※ 夕讀 기록 없음)

2월 23일: ○신시에 이경헌과 조경이 입시하여 『통감』의 ‘曾子曰’부터 ‘可及也’까지 강하였다. ○이경헌과 오달승이 바로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2월 24일: ○묘시에 이경헌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道者萬世亡敝’부터 ‘夏之忠者’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이경헌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2월 25일: ○묘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春秋大一統’부터 ‘民知所從矣’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2월 26일: ○묘시에 이경헌과 조경이 입시하여 『통감』의 ‘及爲江都相’부터 ‘一仁也’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이경헌과 조경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25) 『宋史』 권451 『陸秀夫傳』 참조.

2월 27일: ○묘시에 이경현과 조경이 입시하여 『통감』의 ‘雅向儒術’부터 ‘服色事’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이경현과 조경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2월 28일: ○묘시에 조경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壬寅二年’부터 ‘以千數’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조경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2월 29일: ○묘시에 조경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上簡拔’부터 ‘有所補益’까지 강하였다.(※ 夕讀 기록 없음)

2월 30일: ○묘시에 조경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丙午六年’부터 ‘乃稍退’까지 강하였다.(※ 夕讀 기록 없음)

3월 1일: (※ 晝講은 하지 않음) ○신시에 조경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3월 3일: ○묘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東海太守’부터 ‘不拘文法’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3월 4일: ○묘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黯爲人’부터 ‘慙也’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3월 5일: ○묘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群臣惑數黯’부터 ‘近之矣’까지 강하였다. ○신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석독하였다.

3월 6일: ○묘시에 김육과 오달승이 입시하여 『통감』의 ‘元光元年’부터 ‘神仙事矣’까지 강하였다.(※ 夕讀 기록 없음)

서연은 모두 16번 실시했는데, 2월 16일 세자가 행할 ‘새로운 규칙’²⁶⁾을 정한 뒤로 夕講도 열어 夕讀을 10번 병행하였다. 會講은 실시하지 않았다. 서연에 入侍한 관원은 김육·오달승·이경현·조경 등 네 사람이다.

강론한 과목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모두 『通鑑』뿐이다. 그리고 『통감』을 강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나 질문, 그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없다. 『통감』은 『通鑑節要』를 말하며, 進講한 부분은 모두 『漢紀』의 世宗孝武皇帝 편의 글이다. 이 편을 분조 때 진강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같은 해 분조를 구성하기 전 1월 17일 서연에서 강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실시한 것이다. 이 때 한번 진강한 분량은 대략 200자 내외로 평소의 절반 정도이다.

세자는 서연을 한 번 하고 나서 도중에 이를 소홀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시강원 관리들은 세자에게 서연에 충실하도록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경현이 나아가 아뢰었다. “신들이 친히 주상의 명령을 받들에 간곡히 서연 한 가지 일로써 하교하시니, 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26)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됨.

저하께서 전주에 어가를 머무르신 후에 마땅히 즉시 서연을 어찌할지 여쭙았어야 했으나, 그 때에 적들에 대한 보고가 한창 급하고, 상하가 걱정하며 경황이 없어 지연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진실로 신들의 죄입니다. 서연이 이미 시작된 후에도 연이어 거동이 있으시어 날마다 進講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요사이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서연을 어찌할지 들어와 아뢰었는데, 아직도 下畵이 없으시니 신들은 걱정되고 근심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병이 만약 몰려간다면 마땅히 즉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곳에 머문 날이 이미 많았는데도 강의한 책이 매우 적다면, 돌아가 주상을 뵈고서 장차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침에 조회일을 통해 들으니, 저하께서 남하하신 뒤로 어진 명성과 어진 소문이 멀고 가까운 곳에 두루 미치어 높고 낮은 사람들이 목을 늘이고 우러러 사모하여 세자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부적인 자질로서 유독 학문을 하심에 흠이 있다면 어찌 매우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오달승이 말하였다. “강학하는 방도는 마땅히 촌음을 아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의 일이 혼란스러워서 오래도록 서연을 폐하였다고는 하나, 기왕에 시작한 다음이라면 이처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서연을 담당한 신하의 말을 유념하시어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수업한 글을 만약 아직껏 외우지 못하셨다면, 시간을 조금 늦추어 숙독한 뒤에 강의하면 될 것입니다. 글 줄의 수가 매우 적으니 외워서 읽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세자가 말하였다. “이전에 수업한 글은 이미 외웠으니, 조금 늦추었다가 새로운 글을 수업 받겠다.”²⁷⁾

그동안 적에 대한 보고가 급하고 경황도 없어 서연을 열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소 느슨해졌다고 했다. 게다가 서울을 떠날 때 임금의 서연을 착실히 행하라는 하교도 있었고 전주에 머물러 있던 날도 많으니, 조금이라도 서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자의 어진 명성과 어질다는 소문이 두루 퍼졌다는 사실을 들면서까지 세자에게 서연에 성실하기를 완곡히 종용하는 이경헌의 말과는

27) 『소헌분조일기』 권3,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九日 丙辰: “景憲進曰, 臣等親承大朝之命, 惓惓以書筵一事爲教, 臣等相顧感泣而退矣. 邸下駐駕之後, 當卽爲書筵取稟, 而其時賊報方急, 上下憂遑, 以致遲延, 此固臣等之罪也. 書筵既開之後, 連有舉動, 不得逐日進講. 適今日無故, 故昨夕取稟入達, 而尙無下令, 臣等不勝悶鬱. 賊兵若退, 當卽回鑾, 留此之日既多, 而所講之書甚少, 則還對大朝, 將何爲辭乎. 朝因趙希逸聞之, 則邸下南下之後, 仁聲仁聞洽於遐邇, 大小群情莫不延頸願死云. 以如此之天資獨欠於爲學, 則豈非可惜之甚乎. 達升曰, 講學之道, 當惜寸陰. 雖因時事擾攘, 久廢書筵, 而既始之後, 則不可如是作輟. 伏願體念筵臣之言, 毋少怠忽. 前受之書, 若未及誦, 則差退時刻, 熟讀然後, 進講可也. 行數甚少, 誦讀何難. 世子曰, 前受已誦, 差晚當受新書.”

달리, 오달승은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서연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고 채근하고 있다.

한편 2월 16일 晝講할 때 김육이 말한 ‘세자의 학습방법’이 눈길을 끈다.

김육이 아뢰었다. “邸下께서 전에 배운 것을 익숙하게 외우지 못하고 계시니, 이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서울에 계실 때 大殿께서 학문을 권하심이 매우 엄하셨는데, 어찌 오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학문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저하를 모시고 따라온 것은 애초에 군대를 통솔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進講을 위하여 왔을 따름입니다. 저하께서 학문에 진전이 없으신 것은 신들의 죄입니다. 청컨대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정하였으니, 새로 배우신 뒤에 즉시 10번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신 다음에야 신들이 비로소 물러갈 것입니다. 오후에 다시 請對할 때 또 10번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물러갈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하께서 또 혼자서 10번을 정독하신다면, 이것으로 30번이 되어 능히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하소서.”

세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²⁸⁾

김육은 세자가 익숙하게 외우지 못하여 학문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정했으니, 새로 배운 뒤에 10번, 오후에 청대하여 석강할 때 10번, 다음날 아침에 10번 정독하여 도합 30번을 익힐 것이며, 이렇게 되면 배운 것을 외울 수 있다’고 하였다. 세자의 학문 진전을 위해 정성과 책임을 다하려는 강관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5. 文武科의 設行

1) 문무과의 실시

1627년 2월 11일 撫軍司에서 ‘전부터 위급할 때는 과거를 실시하여 무사들을 많

28)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六日 癸丑: “○辰初金堉・趙綱入侍. 晝講, 堉達曰, 邸下不能熟誦前受, 此極可憂也. 在京之時, 大殿勸學必嚴, 何可以今日遠離, 而不勤於學乎. 臣等之陪從, 初無與於軍國之事, 只爲進講而來. 邸下學之不進, 臣等之罪也. 請自今日定爲新規. 新受之後, 卽讀過十遍. 然後臣等始退. 午後更爲請對, 又讀過十遍. 然後退. 翌朝, 邸下又獨自精讀十遍, 則此爲三十遍, 而可以成誦. 請日日如是. 世子曰, 依爲之.”

이 뽑아 적병을 막고 기세를 떨치도록 하는 바탕으로 삼았다’면서, ‘지금도 전처럼 과거를 실시하여 본도의 선비들을 모아 문인 약간 명을 뽑아, 한편으로는 인심을 고무시키고 한편으로는 軍勢를 조장하는 일을 해야 하니, 임금께 아뢰고 시일을 정하여 과거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세자에게 건의하자, 이를 허락하여²⁹⁾ 문무과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바로 세자는 庭試 날짜를 2월 15일로 정하여 무군사에 내려주었다. 그러나 정작 당일이 되자 비가 계속 내렸고 또 시험 응시자도 매우 적었으므로, 같은 달 18일로 정시를 연기하였다. 같은 달 17일 정시 무과의 試官을 尹調元 · 李宗義 등 5명으로 낙점하였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무과 시험의 선발 법을 정하였다.

무과시의 선발 법도는 鐵箭은 1巡에 한 번 적중시키는 以上, 幟箭은 1순에 한 번 적중시키는 이상, 騎射는 1次에 두 번 적중시키는 이상을 취하고, 二技 砲科의 鳥銃은 3柄에 2명 이상을 취해 쓴다.³⁰⁾

鐵箭은 鐵製의 화살로, 무과의 초시 · 복시와 都試에서 철전을 80步 밖에서 쏘아 매 1矢가 표준지점에 도달하면 7점, 표준거리를 초과하면 초과거리 매 5보마다 1점을 가산하고 1시 以上 득점하면 합격된다. 巡은 활쏘기에서 사람마다 화살 다섯 대씩을 쏘는 한 차례를 말한다.

같은 달 18일 문과 시험관을 沈悅 · 鄭廣敬 · 李植 · 李聖求 · 崔有海 · 趙綱 · 崔始量으로 낙점하였다. 같은 날 卯時에 세자가 시험 장소인 西軒에 나가 시험문제를 ‘殷憂啓聖箴’으로 출제하고 申時로 시간을 제한한 다음, 김육에게 “고사장의 답장이 매우 낮고 또 문틈이 있어서 많이 허술한 듯하니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세자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 밖에 있는 무과 시험장에 친림하여 시험장을 점검하고 시험 과정을 지켜보아, 과거에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

29)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一日 戊申: “撫軍司達曰, 目今賊勢漸迫, 備禦切急, 而官軍已盡調發, 更無得兵之策, 極爲悶慮. 自前如此臨急之時, 設一科舉, 多取武士, 以爲禦敵聳動之地. 今亦依前設科, 兼集本道士子, 略取文人, 一以聳動人心, 一以助張軍勢, 在所不已. 而本道武士, 前已抄發上送之人, 不得參試, 則必有落莫之患, 此類隨後試取之意, 一邊馳啓于大朝, 刻日舉行宜當, 敢達. 答曰, 依達.”

30)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七日 甲寅: “武科試取規矩, 鐵箭一巡一中以上, 幟箭一巡一中以上, 騎射一次二中以上取, 二技砲科鳥銃, 三柄二柄以上取用.”

러나 무과의 활쏘기 시험은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중지하고 그 다음날 실시해야 했다.

문과에서 거둔 試券은 144장이었고, 당일 酉時에 金尙賓·吳權·金元立·柳莘老 등 4인으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무과의 경우는 응시자가 적었으므로 같은 날 무군사에서 “事目を 세우고 먼저 본부에 알리면 응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후하게 상을 더해주시 않는다면 이번에 모집하여 얻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관한 事目を 別單으로 써서 들임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세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무과 응모 요강을 발표하게 되었다.

壯勇의 모집에 자원하는 조목.

하나, 무릇 役에 응하는 사람은 군졸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將領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반드시 담력이 출중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다. 朝官 출신으로부터 雜類의 公私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응모를 허락한다.

하나, 활쏘기와 말타기는 기예와 담력과 지략이 굳세고 민첩하고 출중한 자로서 혹 무거운 것을 들고 강한 것을 잡아당기거나, 혹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으면 모두 합격될 수 있다. 합격한 사람이 직책이 있다면, 6품 이상은 바로 折衝(西班 정3품 堂上官의 位階)을 더해주고 6품 이하는 實職帖을 주며, 謝恩肅拜는 모두 行公의 예와 같게 할 것이다. 직책이 없는 자에게는 혹 內三廳의 실직첩을 주거나 혹 禁軍帖을 주는데, 모두 實職과 같게 할 것이다. 공사천의 경우는 免賤帖을 줄 것이다. 응모한 사람은 집안 식구들이 보호와 구휼을 받게 되며 요역은 경감될 것이고, 상으로 내리는 하사품과 犒饋하는 양식은 넉넉한 수량으로 대우할 것이다. 각자 약간의 정예병을 이끌고 늘 훈련하여, 만약 공로가 있으면 곧바로 상을 논할 것이다. 본도를 수비하고 분조를 호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을 것이며, 만약 軍勢가 점차 신장되면 바로 오랑캐를 쓸어 없애 큰 공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하나, 포수로서 사격 솜씨가 좋은 자도 응모할 것.³¹⁾

31) 『소현분조일기』 권2, 天啓 七年 丁卯 二月 十八日 乙酉: “自募壯勇條目, 一, 凡應役之人, 非欲充軍卒也, 乃欲定爲將領, 必瞻力出衆之人, 方可入格. 自朝官出身至雜類公私賤, 皆許應募者. 一, 弓馬技藝瞻略趨捷出類者, 或舉重挽強, 或超騰, 皆可入格. 凡入格之人, 有職者, 自六品以上直加折衝, 六品以下, 給實職帖. 肅拜謝恩, 一如行公之例. 無職者, 或給內三廳實職帖, 或給禁軍帖, 皆同實職. 公私賤則給免賤帖. 凡應募者, 家室護恤, 徭役蠲減, 賞資犒餉, 優數待之. 各率若干精兵, 常加訓練, 如有功勞, 隨卽論賞. 以保障本道捍護分朝爲己任, 若軍勢漸張, 則直可掃清胡虜, 立大功名者. 一, 砲手能放善手者, 亦爲應募事.”

모집 목적, 응모 자격, 선발 방법, 합격 후의 대우, 향후의 바램 등이 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잡류의 公私賤까지 응모를 허락하고 이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免賤帖을 지급하며, 응모한 사람은 집안 식구들이 보호와 구휼을 받고 요역이 경감되는 등 응시자를 배려한 점이 주목된다. 內三廳은 兼司僕·內禁衛·羽林衛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三廳이라고도 한다.

2) 무과 시험의 문제점과 폐단

문과 시험은 시험 당일에 문제없이 쉽게 끝났지만, 무과 시험은 응시자들이 많아 시험 보는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월 20일 김육이 무과 시험 장소로부터 와서 세자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응시자로서 이미 이름을 등록한 자들이 757명이지만 鐵箭을 아직 쏘지 않은 자가 85명입니다. 추가로 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 모여들고 있어, 만약 제한 없이 오는 대로 이름을 등록한다면 시험이 끝날 기한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마땅할 듯합니다. 이에 감히 아뢰니다.³²⁾

이에 세자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뽑는 때를 당하여 양식까지 싸들고 멀리서 온 응시자들을 쓸쓸히 헛되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잠시 이름을 등록하는 기한을 한정하지 말라”고 너그럽게 하령하였다.³³⁾ 같은 달 24일에도 무군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이름을 등록한 자들 이외에는 일체 허락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기일이 매우 촉박한 데다, 장마와 홍수가 있어 응시자들이 기한에 맞추어 와서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응시자들이 뒤늦게 도착하여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니, 응시자들 모두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원망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외에도 무과 시험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 과거에 응시하면 안 되는 漕

32) 『소현분조일기』 권3, 天啓 七年 丁卯 二月 二十日 丁巳: “文學金堉自試所來, 達曰, 舉子等已錄名者, 七百五十七名, 而鐵箭未射者, 八十五人矣. 欲爲追錄者, 遠近坌集, 若無限節, 隨到隨錄, 則畢試無期, 過今日後, 似當不許追錄, 敢稟.”

33) 『소현분조일기』 권3, 天啓 七年 丁卯 二月 二十日 丁巳: “答曰, 當此廣取之時, 不可使裹糧遠來之舉子, 落莫空還, 姑勿限錄名之期.”

軍이 상전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대리 시험을 치기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이름을 바꿔 응시한 경우도 있었다.

김육이 또 아뢰었다. “武科의 응시자 중에 張思鱸라는 사람이 있는데, 19일에 활을 쏘았으나 적중하지 못하자, 오늘 20일에 張思翰으로 이름을 바꾸어 기록하고는 다시 활을 쏘려고 하였습니다. 잡아다 심문하니 순순히 자백하여 말하기를, ‘出身 張思蓴이라는 자가 그의 동생인 張思鱸를 위하여 그에게 대신 활을 쏘도록 하였는데, 처음에 맞추지 못하자 다시 이름을 바꾸어 재차 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그것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 응시자의 본명은 朴海生입니다. 근래에 대신 쏘고 이름을 바꾸어 기록하는 일이 과거 시험장의 커다란 폐단이 되었으니, 발견하는 대로 무겁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탁한 사람이나 부탁 받은 사람이 나 죄가 같으니, 청컨대 장사순과 박해생 등을 법에 따라 죄를 처단하여 一罰百戒하십시오.”³⁴⁾

윗글에서 “근래에 대신 쏘고 이름을 바꾸어 기록하는 일이 과거 시험장의 커다란 폐단이 되었으니”라는 구절을 보면, 이 문제가 비단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여러 곡절 끝에 3월 1일 李舜民 등 601명이 무과에 급제하였음을 발표하고, 3월 11일 문무과 급제자에게 放榜하였다. 이 중에 文人으로서 붓을 던지고 의를 떨쳐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도 있었는데, 任實僉正 李天吉이란 자가 바로 그이다. 그는 세자에게 상소를 올려, 나라가 수비를 잃은 원인과 자신이 시험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무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대개 우리나라가 수비를 잃은 것은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면 서쪽 변방의 장수들은 전혀 군사를 훈련시키지 않고 다만 고된 노역만 일삼았습니다. 이는 가르치지 않고 싸우는 것이요 양떼를 몰아 사나운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이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예병은 날카로운 병기로 저 창을 들고 말을 탄 군사를 두려워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34) 『소현분조일기』 권3, 天啓 七年 丁卯 二月 二十日 丁巳: “金堉又達曰, 武科舉子中有張思鱸者, 十九日射而不中, 今二十日, 改以思翰錄名, 將爲再射, 捉出問之, 則無辭首服自言, 出身張思蓴者, 爲其弟思鱸, 教渠代射, 初不得中, 則又教改名再射, 故不得已從之云. 蓋其舉子之本名, 則朴海生也. 近來代射改錄之事, 爲科場之大弊, 不可不隨現重治, 而與者受者同罪, 請張思蓴·朴海生等依法科罪, 以一礪百.”

… 신이 붓을 던지고 무과에 응시한 까닭은 공을 이루려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신이 직접 堯·舜과 같이 성스럽고 밝은 임금을 만났는데도, 齊나라와 梁나라 때 같이 쇠하고 어지러운 일을 목도하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신이 지난번에 활쏘기와 말타기로 取才하는 것을 보니 … 그들 가운데 애매하게 낙방하여 원통해하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인재를 많이 잃었으니 이것이 그들 자신의 불행이겠습니까? 신은 나라의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신이 西門에 올라 배회하며 나라를 걱정하던 즈음에 一技에 入格하였으나, 말이 넘어져 낙방한 자 100여 명이 문 아래에 모여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에게 六兩箭으로 과거를 보게 한다면,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한 그 무리들을 보니 모두 壯士이며 실제로 재주를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대개 지금 榜에 붙은 이가 1,000명에 차지 않으니, 널리 취하는 법도가 아닙니다.³⁵⁾

나라가 수비를 잃게 된 것은 서쪽 변방 장수들이 군사들을 전혀 훈련시키지 않고 고된 노역만 일삼아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활쏘기와 말타기만으로 인재를 뽑아 많은 인재를 잃게 되었으니 이는 나라의 불행인 만큼, 다른 과목으로도 인재를 더 많이 뽑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六兩箭은 六兩鐵箭을 말하며 큰 활로 쏘는 쇠로 만든 화살이다.

6. 맺음말

소현분조는 정묘호란 때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行宮이 있는 강화도만 지키다가 실패하면 후방도 무너져 나라가 위태롭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후방에 분조를 두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요새를 방어하면서 전방에 군사와 군량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분조의 여러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민심 수습이었다. 전란시에 민심

35) 『소현분조일기』 권3, 天啓 七年 丁卯 二月 二十九日 丙寅: “任實僉正李天吉上疏. … 大概我國之失守, 所以不得其人也. 何以言之, 西戍將帥, 一不鍊習軍士, 徒以苦役爲事, 是不教而戰, 驅群羊攻猛虎, 孰能禦之. 以我國精兵利器, 畏彼惟以槍馬之軍, 豈不可惜哉. … 臣投筆應科者, 非貪成功之志, 臣躬逢堯舜聖明之君, 目覩齊梁衰亂之事, 衷情奮激, 禁不能已. … 臣昨見革馬取才時 … 其中曖昧寬闊頗多矣. 多失人才, 此當身之不幸乎, 臣以爲國之不幸也. 臣登西門徘徊憂國之際, 有一技入格, 馬屯落榜人百餘, 會于門下, 相與語曰, 我等以六兩繼畫給科, 則我等爲國以死爲限云云. 臣亦見其類, 皆壯士實才也. 大概今榜未滿千, 則非廣取之規也.”

이 동요하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군량과 군병의 지원은 물론 후방을 지키는 일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자는 전주로 내려가는 도중에 민심 수습의 일환으로 호패의 成冊을 소각하도록 지시하였고, 죄수를 석방하기도 하였으며, 軍民들에게 여러 차례 宣諭를 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분조에서 세자의 가장 큰 역할을 든다면, 일부에서 분조의 이동 문제로 민심이 동요한 적도 있었지만, 세자가 전주에 머물러 있었기에 三南 지방이 굳건하고 민심이 안정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적이 깊이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날아들자, 세자를 비롯한 분조의 여러 관리들은 분조가 전주를 떠나 다시 어느 지역으로 내려가 머물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다. 여론이 분분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던 중, 임금의 유지가 내려와 결국 전주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지만, 이때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세자의 태도와 당시 전란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함을 살필 수 있었다.

서연은 세자에게 있어 아무리 다급한 역경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중대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분조의 여러 관리들이 세자에게 수차례 서연을 열도록 권유하였고, 南宋의 陸秀夫가 어린 왕에게 배 안에서 『대학』을 강론했던 사례를 들어 서연의 필요성을 간절히 아뢰는 관리도 있었다. 세자는 전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서연을 16번 실시했다. 세자가 서연을 소홀히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가 시강원 관리에게 성실히 할 것을 종용받기도 하였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서연을 열었다. 그중에 당시 새로 규칙을 정한 세자의 학습 방법이 주목되는데, 같은 문장을 30번을 읽어 익혔다는 점이다.

세자가 분조에서 실시한 큰 일 가운데 하나는 문무과의 실시이다. 문무과는 인심을 고무시키고 軍勢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 때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金尙賓 등 4명이고,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李舜民 등 601명이었다. 이때 세자는 문과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무과 시험장에 친림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시험과정을 지켜보는 등 과거에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과 시험은 응시자가 많아 시험 보는 기한이 문제가 되었고, 이름을 바꿔 대리 응시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소현분조일기』에 나타난 세자의 역할은 본고에서 살펴본 일 이외에도, 강화도의 행궁에 군사 및 군량 조달, 한강·금강·三嶺(조령·죽령·추풍령) 지역의 파수 감독, 각종 폐단의 혁파, 군민에 대한 선유·포상·권농, 관리의 제수 등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소현분조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소현분조일기』, 규장각 소장.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宋史』, 중화서국, 2006.

Abstract**Sohyeon Court – Division and Role of Prince in Chongmyo Horan
Era – Focused on *Sohyeon bunjo ilgi***

Sung Dang-je

There was two-time ‘court-division (Bunjo)’ in Joseon dynasty: Kwanghae court-division and Sohyeon court-division. The record on Kwanghae court-division was not existent and the diary of Sohyeon court-division (*Sohyeon bunjo ilgi*) is survived. *Sohyeon bunjo ilgi* is the unique and important data for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role and character of divided-court.

This research is a studying for Sohyeon court-division that was established during the first Manchu invasion in 1627 (the Chongmyo horan), especially for the organization of divided-court of Crown Prince Sohyeon and his role, based on *Sohyeon bunjo ilgi*. This diary consists of many things and events, and has various topics to do research. But the basic works for the diary such as translation into modern Korean and annotation has been not completed and my research was the first trial to analyze the data, so that I delimited my scope of topics as this: organization of divided-court and moving route, people’s unrest according to mobile divided-court, arguments on the place of mobile divided-court, daily study and instituting of state examination for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Keywords: Sohyeon court-division, *Sohyeon bunjo ilgi*, Crown Prince Sohyeon, King Injo, daily study, instituting of state examination for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the Chongmyo horan, Changdal, people’s rest.